

具常의 『그리스도 폴의 江』과 불교적 상상력

정 호 구*

차 례

- | | |
|----------------|----------------|
| 1. 문제제기 | 4. 穢土와 淨土의 상상력 |
| 2. 實相과 實有의 상상력 | 5. 결어 |
| 3. 回心과 修行의 상상력 | |

국문초록

이 글은 구상 시인의 시작 여정 속에서 최고봉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의 연작시집 『그리스도 폴의 강』 속에 나타난 불교성 및 불교적 상상력을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씌어졌다. 이와 같은 시도를 하게 된 것은 구상 시 전편에 불교성 및 불교적 상상력이 두루 나타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이 시집 속에 그런 경향이 특히 비중 있게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구상은 일반적으로 가톨릭시즘에 그의 전 생애를 바친 시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일면적 진실일 뿐, 실제로 그의 시에는 범종교적이라

*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할 만한 종교적 원형이 장애 없이 통합되어 들어 있으며 특별히 불교성 및 불교적 상상력이 아주 강하게 배어 있다.

구상의 시집 『그리스도 폴의 강』에 나타난 불교성 및 불교적 상상력의 대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시어의 상당 부분이 불교용어 및 불교적 표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둘째, 불교적 모티프나 이미지 또는 불교적 상징이 적잖게 들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 불교적 세계관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기공성’과 ‘연기일체’라고 부를 수 있는 불교적 세계관은 가톨릭을 비롯한 다른 종교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불교 특유의 세계관인데 구상은 이것을 수용하여 원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불교적 인간관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그 자체로 불성, 곧 ‘신성한 실재’를 지닌 존재라는 인식과 더불어, 그런 인간들이 회심과 수행을 통하여 진리 혹은 신성한 실재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들어 있는 것이다. 다섯째, 불교적 현실관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깨닫지 못한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은 예토이지만 그 인간들이 눈을 뜨고 정진을 한다면 지금/이곳에서 정토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시집 『그리스도 폴의 강』은 이와 같은 불교성 및 불교적 상상력으로 다음과 같은 시적 성과를 이룩하는 한편 우리 시사 속에서 남다른 의의를 획득하고 있다.

그 첫째는, 구상 시인이 ‘진리’를 개개의 종교나 그 교리보다 앞에 두고 산 시인으로서 그의 시에서 배타적 종교성으로 인하여 분열되었던 기성 종교나 교리가 포용되고 통합되는, 이른바 화쟁의 미학이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불교를 통하여 가톨릭 신앙을 보다 넓은 차원에서 조명하고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가톨릭계를 위해서도, 또 가톨릭 문학을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는 점이다.

셋째는, 시의 미학적인 측면에서 보다 넓고 깊은 세계를 구현하는 계

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상의 불교적 안목과 포용력은 『그리스도 폴의 강』의 전체적 구성이나 문체를 원숙하게 하고 그 정신적 품격을 높여주는 데 훌륭하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상의 시를 통하여 모처럼만에 참다운 의미에서의 ‘화쟁’의 사상과 미학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포용과 융합, 열림과 소통이 시정신의 향상이나 예술미학의 고양에 얼마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지를 절감할 수 있다. 구상의 시집 『그리스도 폴의 강』이 남다른 감동을 주고 또 한국 시사에 남을 문제작으로서 손색 없는 경지를 열어보인 것은 바로 시인의 이와 같은 자세와 추구 그리고 마음의 작용이 빚어낸 것이라 생각된다.

주제어 : 구상, 그리스도 폴의 강, 가톨릭시즘, 불교성, 불교적 상상력

1. 문제제기

구상(1919-2004)의 시작 여정 속에서 시집 『그리스도 폴의 강』은 정점에 서 있는 작품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정신적 높이와 언어적 수련의 측면에서는 물론, 총 65장에 이르는 긴 호흡의 장시가 보여준 노작이자 역작으로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스도 폴의 강』은 1983년부터 1985년까지, 그러니까 구상의 나이 65세부터 67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 월간 『시문학』지를 통하여 연재된 50편의 작품과 그 이전에 씌어진 10편의 작품 및 그 이후에 씌어진 5편의 작품을 합하여 총 65편으로 구성 및 완결된 시집이다. 이 시집은 2009년, 구상 탄신 90주년을 맞이하여 ‘구상문학상’을 제정하면서 그 기념시집으로 출간될 만큼 구상 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대표작이자 문제작이다.

구상 시인과 관련하여 우리 시단과 시학계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하나는 그가 가족사적으로 남다른 가톨릭 신앙의 환경 속에 놓여 있었고 그 자신도 가톨릭 신앙인으로 살았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가 해방 직후 북한에서 소위 『凝香』지 사건¹⁾에 연루되어 북한 정권으로부터 불순불자로 지목되는 바람에 원치 않는 월남인의 비극을 겪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상 시에 대한 연구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져 왔다. 그는 가톨릭 정신을 형상화한 구도의 시인이었으며, 남북분단과 전쟁의 비극을 절감하고 그려낸 현실고발과 휴머니즘의 시인이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리스도 폴의 강』도 이런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탐구되었다. 특히 전자와 관련되어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가톨릭 정신세계를 형상화한 구도의 시편이자 시집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었다.¹⁾ 혹여 여기서 더 나아가다 해도 이 작품은 ‘초월성’ ‘영원성’ ‘구도성’ ‘형이상성’ 같은 말로 그 핵심이 언급되었다.²⁾

물론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구상 시의 중요한 점을 밝혀낸 것이다. 그러나 선입견 없이 구상의 시를 읽어보면 불교성 혹은 불교적 상상력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그의 시작 과정 전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리스도 폴의 강』도 예외가 아니거니와, 특별히 이 시집은 총 65장의 어느 곳을 펼쳐도 불교성 및 불교적 상상력이 눈에 띈 만큼 그가 신앙했던 가톨릭 세계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 얼마간의 과장이 허용된다면 이 시집의 주된 상상력이자

1) 우종상, 「구상 시 연구 - 현실의식과 구원사상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_____, 『시인 구상의 문학세계』(글마당, 2011), 251-270쪽.

2) 김정신, 「구상 시의 존재론적 탐구와 영원성 - 『그리스도 폴의 강』과 『말씀의 실상』을 중심으로」, 『문학과 종교』15권 1호(2010), 61-80쪽.

김은경, 「구상의 연작시 연구 - 『그리스도 폴의 강』을 중심으로」, 호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세계는 불교 혹은 불교적인 것이고, 가톨릭은 차후적인 것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이 논문은, 『그리스도 폴의 강』이 지닌 이와 같은 면모를 한 번쯤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구상 시에 대한 이와 같은 접근은 그의 시를 좀더 풍요롭게 읽어내며, 그의 시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벗어나게 하고, 종교 간의 관계가 배타성보다 상호연계성 및 관련성 속에 있음을 인지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구상 시의 이와 같은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첫째로 구상 시인이 직접 고백했듯이 그가 일본대학의 종교학과에 다니면서 그의 표면적 신앙과 관계 없이 종교 일반과 더불어 특별히 불교를 상당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내면화하게 되었다는 점,³⁾ 둘째로 그가 불교계의 많은 승려들 및 지성인들과 서로 외경하는 마음으로 교류했다는 점,⁴⁾ 셋째로 『그리스도 폴의 江』의 해설에서 이승원도 지적했듯이 ‘그가 깨달은 세상의 진리는 가톨릭 신앙에 바탕을 두고 불교의 진리와 도교의 진수를 함께 아우른 것’⁵⁾처럼 보인다는 점, 그리고 끝으로 홍신선이 『그리스도 폴의 강』의 초월성을 논하면서 몇몇

3) 구상, 「불교와 나」, 『구상문학총서 제8권 : 그 분이 홀로서 가듯』(홍성사, 2008), 124-127쪽. 그는 이 글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시 일본대학 종교과의 커리큘럼이란 그 60퍼센트가 불교 경전의 주석이요, 나머지가 종교의 학문적 이론이나 체계, 또는 기독교나 여타 종교의 개론 등으로 좋은 곳든 불교의 여러 경전 강의를 날마다시피 3년 동안 들어야 했다. 이것이 내가 불교를 접하게 된 동기로서 기독교인으로서의 비교적 불교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있다고 알려지고 또 때마다 땡땡이증 같은 소리를 한다고 놀림을 받는 연유이기도 하다.”

4) 구상은 증광 스님, 혜련 스님, 경봉 스님 등 불교계의 여러 선사 및 지성들과 교류하였다. 그가 쓴 다음과 같은 글을 이런 사실과 관련시켜 읽어볼 만하다: 구상, 「수도(修道)와 선(禪)」, 위의 책, 157-159쪽; 구상, 「진리는 하나」, 위의 책, 228-229쪽.

5) 이승원, 「해설 : 강(江)의 상징성과 불이(不二)의 세계관」, 『그리스도 폴의 江』(홍성사, 2009), 133-134쪽.

곳에서 이 시집이 지닌 불교적 초월의 기미를 확인한 것⁶⁾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을 참고하더라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시 자체가 보여주는 실제의 양상이다. 필자가 분석한 바로는 『그리스도 폴의 강』의 거의 모든 곳에서 불교적 상상력은 가톨릭의 세계 못지 않게 작품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이자 근간 원리가 되어 있다. 이것은 그가 가톨릭 신자의 모습을 벗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종교적 구도성이 그만큼 포괄적이고 개방적이며 성숙미를 지니고 있다는 증거이며, 소위 ‘영원의 철학’⁷⁾이라고 불리는 구도의 정점을 그가 가톨릭 경계 너머의 세계에서 자유롭게 내면화시키고 있다는 징표라 할 수 있다.

2. 實相과 實有의 상상력

바람직한 의미에서의 종교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實相 및 實有를 보고자 한다. 실상과 실유란 인간적 소견이나 욕망을 넘어서 있는 그대로의 전체성의 세계, 다시 말하면 우주 자체의 본 모습으로서, 이런 세계를 탐구하여 시사하거나 담아내고 있는 텍스트를 가리켜 인간들은 ‘경전’이라 부른다.

그러나 실상과 실유의 참모습을 온전히 파악하기란 인간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어 있다.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은 실상 혹은 실유의 4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⁸⁾ 그렇더라도 인간들은 인간적 사심이나 이해관계가 개입되

6) 홍신선, 「초월과 물의 시학 - 具常論」, 『상상력과 현실』(인문당, 1989), 84-96쪽.

7) 올더스 헉슬리, 『영원의 철학』, 조경옥 옮김/오강남 해제(김영사, 2014), 9-20쪽.

구상 시인을 말하면서 ‘영원성’의 개념을 명료하게 밝힌 글이 많지 않다. 필자는 ‘영원성’ 혹은 ‘영원성의 철학’을 종교학자 오강남이 규정한 것과 같이 ‘종교적 인간이 이를 수 있는 가장 심오한 경지’라는 의미로 쓰고자 한다.

지 않은 참본성, 참진리, 참이치, 참성품 등에 대한 꿈을 지니고 그것을 탐구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 그만큼 인간은 그 본성상 종교적인 존재이다. 달리 말하면 ‘호모 텔리기우스’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인간들은 그들이 실상과 실유를 알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깊은 의미에서는, 실상과 실유 속에서 ‘이미’ 살고 있다. 아니 인간 자체가 실상이며 실유이다. 이것을 올더스 헉슬리는 ‘그대가 그것이다(That Art Thou)’라는 상징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⁹⁾

종교는 과학이라기보다 직관이자 통찰의 영역이다. 따라서 과학과 다르게 실증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실상과 실유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다. 불교에서 제시하는 실상과 실유의 핵심은 ‘緣起空性’의 세계이자 ‘緣起一體’의 세계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실상과 실유의 세계는 무상과 무아의 연기적 세계이자 일체와 일심의 연기적 관계라는 것이다.

구상의 시집 『그리스도 폴의 강』에는 바로 이 무상과 무아의 연기성과 그 일체성이 중요한 세계 및 자아 인식의 내용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시간적 무한과 공간적 무변에 닿아 있으면서 이 세계엔 불변의 실체와 분리된 개체가 부재함을 알려준다. 요컨대 세상은 연기적 무상과 무아로 구성된 일체의 장이라는 것이다.

이로부터 불교의 근본교리인 삼법인을 떠올릴 수 있다. 제행무상, 제법무아, 열반적정이 그것이다. 그리고 모든 존재가 불성의 실유이며 세계는 화엄일법계라고 하는 如來藏사상과 一切一體사상을 떠올릴 수 있다.

강에/ 물이/ 하염없이/ 흐른다.

8) 이석영, 『모든 사람을 위한 빅뱅이론 강의 : 한 권으로 읽는 우주의 역사』(사이언스북스, 2009).

9) 올더스 헉슬리, 앞의 책, 21-53쪽. 여기서 헉슬리는 종교 공통의 원형을 27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으뜸이자 중심이 바로 ‘그대가 그것이다(That Art Thou)’이다.

저렇듯 무심한 물이/ 어느덧 하늘로 올라가
안개가 되고 구름이 되고/ 이슬이 되고 비가 되어서
또다시 땅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이번엔 생명에게 스며서/ 풀이 되고 나무가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되고/ 새가 되고 물고기가 되고
짐승이 되고 사람이 된다.

하지만/ 목숨을 다하면
그 물이 소릇이 빠져나와/ 다시 강이 되어
여기 이렇듯/ 하염없이 흐른다

- 「그리스도 폴의 강 50」의 전문¹⁰⁾

위 시엔 강물의 영원성, 무심한 흐름의 성품, 무상한 변화성, 수도 없는 연기성이 형상화돼 있다. 시인의 눈으로 보기에 강물은 이런 본성이자 진리를 심오하게, 한결같이 보여주는 실유의 상징이자 우주적 상징이다. 이것을 달리 풀어보면 물은 그 자체로 범성의 몸으로서 무수한 化身을 만들어내며 원융한 삶, 불이의 삶, 영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구상의 이와 같은 실상 및 실유관은 「그리스도 폴의 강 54」에선 無始無終의 시간적 영원성과 無常性 그리고 不生不滅의 공간적 연관성 및 일체성을 통해 나타난다. 예를 들면, 그는 이 시에서 “나의 시계(視界) 속의 강은/ 비롯함이 없는 곳에서 흘러나오고/ 마침이 없는 곳으로 흘러가서/ 이 지구가 소멸된 뒤에도/ 아니 저 우주가 해체되어도/ 흐르고 또 흐를 것이다”¹¹⁾라는 말이나 “나는 이 강의 한 방울 물이지만/ 내가 없이는 이 강을 이룰 수 없어/ 정녕 스러질 수도 없고/ 정녕 비길 수도 없는/ 영원의 그 한 모습으로// 바로 이렇게/흐르고 있다”¹²⁾는 말로 이와 같은

10) 구상, 『그리스도 폴의 江』(홍성사, 2009), 85쪽.

11) 위의 책, 92쪽.

12) 위의 책, 92-93쪽.

점을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뛰니뛰니 해도 구상의 시집 『그리스도 폴의 강』에서 이와 같은 점을 가장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문제작이자 수작은 「그리스도 폴의 강 16」이다. 그 전문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강은/ 과거에 이어져 있으면서 /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강은/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산다.

강은/ 헤아릴 수 없는 집합이면서/ 단일(單一)과 평등을 유지한다.

강은/ 스스로를 거울같이 비워서/ 모든 것의 제 모습을 비춘다.

강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한다.

강은/ 그 어떤 폭력이나 굴욕에도/ 무저항(無抵抗)으로 임하지만/ 결코 자기를 잃지 않는다.

강은/ 못 생명에게 무조건 베풀고/ 아예 값을 바라지 않는다.

강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려서/ 어떤 구속(拘束)에도 자유롭다.

강은/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면서/ 무상(無常) 속의 영원을 보여준다.

강은/ 날마다 팬터마임으로/ 나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친다.¹³⁾

위 시에서 구상이 제시한 실상 혹은 실유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연을 보면 강은 과거와의 연속성 속에서 흐르되 무집착의 마음을 지닌 연기공성의 흐름 자체이다. 이것은 그가 강의 연기적 무심성을 본 것

13) 위의 책, 34-35쪽.

이다. 다음으로 제2연을 보면 강은 오늘과 미래를 동시에 살기에 여기서 오늘과 미래의 분별은 무너지며 이들은 한 몸이 된다. 그리고 제3연을 보면 강은 중중무진의 연기적 존재이지만 결국 ‘하나’이자 ‘평등심’의 장을 이룬다. 그리고 제4연을 보면 강은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는 사심 부재의 거울이 되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대로 비춰주는 ‘虛空’ 혹은 ‘空의 거울’과 같다. 이어서 제5연을 보면 강은 我相을 드러내지 않는 下心の 무상 속에 있으며, 제6연을 보면 강은 어떤 일에도 본성을 잃지 않는 부동심의 존재이다. 그리고 제7연을 보면 강은 베풀되 바라지 않는 無住의 존재이며, 제8연을 보면 강은 해탈인과도 같은 자유의 삶을 살고 있다. 이어서 제9연을 보면 강은 현상적으로 생성과 소멸의 움직임을 보여주나 실은 ‘무상 속의 영원’을 사는 존재이다. 마지막으로 제10연을 보면 강은 묵언으로 설법을 하는 언어 너머의 善知識 같다.

위에서 보았듯이 강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실상 혹은 실유의 모습들이며, 연기, 무상, 무아, 일체, 일심, 영원, 열반, 해탈 등과 같은 불교적 실상 개념과 궤를 같이 한다.

구상 시의 이런 점은 「그리스도 폴의 강 65」에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제시된다. 이 시는 시집의 맨 마지막 작품이면서 구상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의 종합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앞의 「그리스도 폴의 강 16」과 유사한 것이므로 여기서 다시 분석하지는 않겠다.

실상과 실유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졌을 때, 인간들은 그 세계와 합일하거나 그 세계에 순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된다. 왜냐하면 삶이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실상 및 실유의 참모습과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참다운 삶이란 이런 삶이라고 여기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들이 이와 같은 실상과 실유의 참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은 구원과 깨달음의 길에 다가간 것이다. ‘悟道’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진리 통찰의 경험은 매우 특별한 것으로서, 사적 자아와 단견을 중심에 두던 자리

에서 전체성의 실제 그 자체를 중심에 두는 자리로 옮겨가는 시각과 사유의 전변이 일어나는 것이다.

구상의 시엔 이런 구원과 오도의 안목에 입각하여 세속적 상식을 파괴하는 힘이 있다. 전체성의 참모습을 읽고 있는 그에겐, 個我와 인간 이전의 태허, 허공, 절대계, 신비, 염화미소의 세계, 일물성, 화엄세계 등으로 언급된 우주적 실재가 앞서 있다. 그는 현상계 이전의 본질계를 중시하며, 마침내 자신을 포함한 인간들의 현상적 세계를 본질계와 일치시키는 힘을 그의 시에서 보여준다.¹⁴⁾ 이런 사실로 인하여 구상 시는 불교에서 말하는 我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과 같은 것들을 넘어서는 ‘無相’의 길을 열어 보이고, 이런 無相界와 하나가 되기 위해 끝없는 정진을 수행한다.

3. 回心과 修行의 상상력

‘回心’은 기독교 용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불교의 핵심 용어이기도 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회심’의 뜻은 私心을 無心으로 돌리는 일이다. 달리 말하면 인간들의 에고의식이 만들어낸 오염과 왜곡을 무아의식이자 大我의식(空心이자 公心)의 힘으로 되돌려 정화시키는 일이다. 삶이 에고의 장애 불과하다는 범속한 사유를 가진 사람들에게겐 이 ‘회심’의 길이 낮설게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앞장에서 언급하고 논의했던 실유와 실상을 보았거나 보고자 하는 자들에겐 이 회심으로 인한 존재의 전변이야말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과업이며 인간이 가야 할 참다운 길이다.

구상의 시에서 ‘회심’의 문제는 처음과 마지막의 자리를 모두 차지할

14) 홍신선이 ‘眞俗二諦’, 즉 眞諦와 俗諦를 이 시에서 읽어내며 이들을 眞俗不二로 이해한 점은 참고할 만하다. 홍신선, 앞의 글, 91쪽.

만큼 중요한 일이다. 구상은 그의 시 「그리스도 폴의 강」의 ‘프롤로그’장에서 아예 첫 연을 이 회심의 문제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스도 폴!
나도 당신처럼 강을
회심(回心)의 일터로 삼습니다.¹⁵⁾

위 인용 부분에서는 그리스도 폴도, 강도,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회심의 일터’라는 말이다. 더 정확히는 ‘회심’이라는 말이다.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폴도, 강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폴의 강』에서 소재로서의 그리스도 폴이나 강의 의미를 밝히는 일보다 ‘회심’의 의미를 밝히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구상에게서 ‘강’은 만유실체의 환유일 뿐, ‘강’만이 실유와 실상의 대상으로 한정지어 지목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회심이란 불교적 표현으로 ‘廻光返照’ ‘轉識得智’ ‘轉迷開悟’의 의미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사심을 돌려 참마음을 보는 일, 사심을 버리고 일심을 회복하는 일, 속진을 버리고 신성을 보는 일이 바로 ‘회심’이기 때문이다.

회심은 그 가능태로 볼 때 범부가 성인이 되는 데까지 그 존재의 차원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죄인이 성자가 되는 데까지, 불교식으로 말한다면 중생이 覺者나 보살이 되는 데까지, 또 유교식으로 말한다면 소인이 대인(군자, 성현)이 되는 데까지 그 무한향상의 길을 상징할 수 있다. 인간에게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자리에서 ‘회심’의 일이 비롯될 수 있다. 그리고 실상과 실유를 본 자의 자리에서는 이런 일이 당연하고 간절한 인간사일 수 있다.

구상의 『그리스도 폴의 강』의 중심 인물인 ‘그리스도 폴’은 ‘회심’의

15) 구상, 『그리스도 폴의 강』(홍성사, 2009), 13-14쪽.

삶을 보여주는 전범에 해당한다. 그는 가톨릭 성인 14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힘이 장사였으며 세상에서 가장 힘센 왕의 신하가 되어 멋진 인생을 살고자 원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길을 떠난 그리스도 폴은 강에서 길손들을 건네주는 隱修者를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이 강가에 살면서 길손들을 무사히 건너게 해주는 일이 가장 위대한 왕을 만나는 일이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리스도 폴은 이 일을 수행한다. 그러는 동안 그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무겁게만 느껴지는 소년 예수를 건네주게 되는 일이 찾아왔다. 그는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왕보다도 참다운 왕인 소년 예수를 만남과 동시에 그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는 기적을 체험한다. 이후 그리스도 폴은 이전의 이름인 오페로 대신 ‘그리스도를 어깨에 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 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되었고 그는 길손들을 건네주다가 하느님을 만나 회심한 수행자의 표본이 되었다고 한다.

회심과 같은 계열의 단어인 회개, 수련, 수행, 수양, 수신 등은 진정한 종교에서 이기적 개아를 넘어서 실상 및 실유와 합일하고자 하는 정진의 뜻을 가진다. 구상의 시 『그리스도 폴의 강』에서 이 점은 시집 전체를 이끄는 원동력이거나, 그것은 특별히 불교적 수행의 문제와 연관시켜 언급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강을 회심의 일터로 삼은 그리스도 폴의 삶에서 우리는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불교의 ‘반야용선’의 모티프를 떠올릴 수 있다. 즉 강의 이 언덕인 차안에서 강의 저 언덕인 피안으로 도달하게 하는 일을 끝도 없이 계속하며 중생들을 실어나르는 ‘바라밀행’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한용운의 시 「나룻배와 행인」도 이런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구상은 실제로 「그리스도 폴의 강 1」과 같은 작품에서 “피안(彼岸)을 저어가듯/ 태백(太白)의 허공 속을/ 나룻배가 간다”¹⁶⁾와 같은 표현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폴의 강 2」의 “나루터에서/ 호룡을 현

16) 위의 책, 15-16쪽.

조각배를 타고/ 외론 영혼이 저어나간다”¹⁷⁾와 같은 표현을 통하여 ‘반야 용선’의 바라밀행을 상기시킨다.

구상의 회심과 수행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개념은 ‘觀水洗心’이다. 그가 자신의 처소를 ‘觀水齋’라고 명명한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이거니와, 그의 방안 액자엔 ‘觀水洗心’이란 문구가 화두 혹은 좌우명처럼 걸려 있었다고 한다. 그는 물을 통하여 ‘洗心’에 뜻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洗心’은 사심을 넘어 무심과 공심 그리고 대아심으로 마음을 전변시키는 일이다. 이러한 ‘세심’의 일이야말로 불교의 ‘마음 닦기’ ‘마음 공부’ ‘마음 챙김’ 등 일체의 마음수행론과 궤를 같이한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불교의 마음닦기인 수행론에서 가장 본격적인 것은 대승의 婆羅密行, 四攝法, 四無量心 등이다. 이 가운데서도 바라밀행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세목이 매우 보편적이고 적절하다. 참고로 바라밀의 대의인 육바라밀을 여기에 열거해보면 그것은 布施바라밀, 持戒바라밀, 忍辱바라밀, 精進바라밀, 禪定바라밀, 智慧바라밀을 가리킨다.

구상이 선지식으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 폴의 강』의 그리스도 폴은 이 바라밀행을 잘 실천한 인물이다. 그리스도 폴이 길손들을 태워 강을 건너준 것은 보시행이요, 그가 악인으로부터 선인으로 마음을 바꾼 것은 지계행이며, 그가 인내심을 갖고 길손들을 건네주면서 끝까지 참아낸 것은 인욕행이요, 그가 멈추지 않고 왕을 기다리며 일념으로 집중한 것은 정진행이며, 그가 자신도 잊을 만큼 이 일에 몰두하여 한 마음이 된 것은 선정행이요, 그가 소년 예수를 만나 성인이 된 것은 지혜행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섯 가지 행은, 그에게 단순히 행으로서 머무르지 않고 그를 차안에서 피안으로 건너가게 한 ‘바라밀행’으로 완성된다.

회심, 수행, 관수세심 등의 고귀한 뜻 앞에서 구상이 위와 같은 바라밀행과 더불어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돌본 것은 ‘참회’이

17) 위의 책, 17-18쪽.

다. 참회란 자신의 사심이 준동하여 분별심 속에서 세상을 나누고 자신의 마음을 오염시킨 데 대한 반성이자 재발심의 행위이다. 이것을 회개라고 부르든, 愼獨이라 부르든, 인간들은 이런 행위를 통하여 본성자리로 되돌아간다. 말하자면 두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생멸심을 여의고 근본심으로 돌아가 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구상의 작품 「그리스도 폴의 강 19」에는 ‘똥자루’ 같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일이, 「그리스도 폴의 강 20」에는 신비의 하루를 구정물처럼 산 자신을 참회하는 일이 절절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이런 참회와 회심 그리고 수행 속에서 구상은 그 자신의 수행정도를 점검하는 일을 절박한 심정으로 반복한다. 그의 시 「그리스도 폴의 강 59」에 이 점이 잘 드러나 있다.

웨스페라의 성합(聖龕)*처럼 휘황스레
태양이 솟은 아침 강 한복판으로부터
홀연 물 위를 터벅터벅 걸어오시는
나의 사부(師父), 그리스도 폴 성인(聖人),

놀람과 반가움에 어쩔 줄 모르는 내 앞에
그 분은 신장(神將) 같은 모습으로 다가와서
마치 찰처(撻處)*나 하듯 다짜고짜 물었다.

“요한* 형제! 그대는 강을
일터로 삼은 지 이미 여러 해
이 강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신비를 보았습니다.”
무망중, 나의 대답이었다.

“요한 형제! 그대는 강을
일터로 삼은 지 이미 여러 해

이 강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신비를 배웠습니다.”
내친 김의 눈먼 대답이었다.

“요한 형제! 그대는 강을
일터로 삼은 지 이미 여러 해
이 강에서 무엇을 깨우쳤는가?”

“신비를 깨우쳤습니다.”
그 거듭되는 질문이 나의 대답의
인가(認可)*쯤 여겨서 으쓱대며 응답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나의 사부는
마치 손에 쥔 여의봉(如意棒)을 휘두르듯
노기를 띠고 일갈(一喝)하기를

“이 도둑놈, 사기꾼아! 그것은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배우고
못 깨우쳤다는 말 아닌가?”

나는 황겁결에 고개를 떨구고
“네”랄 수밖에 없었다.

“네?!그 소리만이 구원(救援)이로구나,
다시 시작해라, 강과 더불어 쉼 없이?”

“네.”

내가 얼마만엔가 고개를 쳐드니
그리스도 폴 성인(聖人)은 사라지고
강만이 쉼 없이 흐르고 있었다.

-
- * 웨스페라의 성합 : 가톨릭의 성체강복(聖體降福)이라는 의식에 쓰이는 황금색 제기로, 태양의 광채 모양을 함
 - * 찰처 : 불교의 참선에서 사승(師僧)이 수행자에게 질문을 발하는 것.
 - * 요한 : 필자의 세례명
 - * 인가 : 불교에서 사승이 제자의 수도의 원숙(圓熟)을 인정하여 증명해 주는 일

- 「그리스도 폴의 강 59」의 전문¹⁸⁾

이 글이 『그리스도 폴의 강』 속에 나타난 불교적 상상력을 다루는 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위 시를 보면서 이 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기로 한다. 먼저 위 인용시에 나타난 용어들의 불교적 성격을 언급해 보기로 한다. 神將, 拶處, 認可, 如意棒, 一喝 등은 모두 불교적 용어이자 개념들이다. 특히 이 시에서 사부인 그리스도 폴과 화자인 시인과의 문답법은 불가의 선적 문답법 내지는 인가의식을 원용하고 있다. 선지식인 스승이 수행승인 제자의 깨달음과 수행정도를 측정하는 불교의 문답법이 그대로 위 시의 분위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스승은 묻고 제자는 답한다. 그러는 가운데 제자는 스스로 자신의 깨달음과 수행정도를 가늠한다. 앞의 시를 보면 제자인 시인은 스승과의 문답을 통해 아직 갈 길이 멀었으니 강물과 더불어 쉼 없이 다시금 수행 정진을 계속하라는 소리를 듣는다.

어느 종교에서건 수행의 길은 끝이 없다. 불완전자인 인간이 우주의 이치에 계합되는 삶을 빈틈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길은 ‘영원을 가는 길’로 언급된다. 기독교에선 예수의 화신 그 자체가 될 때까지, 유교에선 성현 그 자체가 될 때까지, 老莊에선 무위인 그 자체가 될 때까지, 불가에선 부처 그 자체가 될 때까지 나아가야 할 길인 것이다.

그런데 구상의 『그리스도 폴의 강』에서 흥미로운 것은 수행의 모범이

18) 위의 책, 101-103쪽.

자 완성자 같은 존재로 두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구상은 이들을 위의 그리스도 폴과 등가의 자리에 놓이는 것과 같은 인물로 그리고 있다. 그들은 요한 바오로 2세와 성철 스님이다. 구상은 이 두 인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지금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바로 그제 백만의 신도가 모인 여의도
그 찬란한 가설제단에 앉으셨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몇 달 전 여성잡지에서 뵈온
가야산(伽倻山) 바위 앉으신 성철(性徹) 종정과의
두 모습

한 분은 인파(人波)의 그 환성 속에 계시고
한 분은 자연의 그 적막 속에 계시나
두 모습 그대로가 진실임을 의심할 바 없거늘
과연 이 대조(對照)는 무엇을 뜻함인가

한 분이 행하시는 인위(人爲)의 극진(極盡) 속에도
한 분이 행하시는 무위(無爲)의 극치(極致) 속에도
신비가 감돌기는 매한가지어늘
과연 이 부동(不同)은 무엇을 말함인가?

저 두 분의 모습이 다 함께
진리의 체현(體現)임에 다를 바 없으니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소식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정동일여(靜動一如)의 소식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위 시의 요한 바오로 2세는 가톨릭계의 교황이다. 그리고 성철 스님은 불교계의 종정이다. 교황이나 종정이란 이름은 각 교계에서 깨달음과 수행의 최고 자리에 올라간 사람을 가리키는 언어이다. 이 두 사람이 실제로 그러한지의 여부는 가톨릭의 하느님이나 불가의 붓다만이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적어도 인간들의 안목으로는 이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았고 기대하고 있는 터이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구상이 요한 바오로 2세와 성철 스님, 가톨릭 세계와 불가의 세계를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상은 이들 두 인물과 그 세계를 중도의 관점에서 통합하고 있는 것이다. 중도는 불가의 세계관이자 실상관이다. 불이법의 근간이며 무심 혹은 일심법의 핵심이다.²⁰⁾

어쨌든 본장의 논지에 비춰볼 때 중요한 것은 구상의 회심과 수행의 길이 참으로 진지하고 정직하며 철저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회심과 수행의 문제가 배타적 기독교의 범주에 머물지 않고 불교성 및 불교의 상상력과 깊이 닿아 있다는 것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불교적 회심과 수행의 길이 저변에 깊이 가로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구상은 이와 같은 회심과 수행의 여정에서 同根意識, 同體意識, 一物意識, 一體意識을 자주 보여준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한 뿌리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자신과 세상의 모든 것은 물론 시 속의 강물과도 실은 한 몸이라는 것, 따라서 세상은 ‘하나’이며 그 ‘하나’가 자신의 실존이라는 것을 그는 언급한다.²¹⁾

19) 위의 책, 66-67쪽.

20) 이 점에 대해서는 이승원과 홍신선도 책을 같이 하여 언급하였다. 이승원은 가톨릭과 불교를 ‘不二’라는 관점에서 본 것으로, 홍신선은 속제와 진제의 모순을 하나로 본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승원, 앞의 글, 136쪽. 홍신선, 앞의 글, 91쪽.

21) 구상은 가톨릭의 유일신 교리에 고민하다가, 가톨릭계가 1965년 이른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하여 타종교의 포용 및 그와의 소통을 선포한 일에 감격하며 그때의 후련한 심정을 고백해 놓은 바 있다: 구상, 「진리는 하나」, 『구상문학총서 제8권: 그 분이 홀로서 가듯』(홍성사, 2008), 228-229쪽. 구상, 「동서관

이런 구상에게 회심과 수행의 길은 소승적 개인 구원을 넘어서서 대승적 세계 구원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 점은 다음 장에서 예토와 정토의 문제를 다루며 좀더 깊이 논의하기로 한다.

4. 穢土와 淨土의 상상력

예토란 개아로서의 ‘나’가 있다는 생각 속에서 인간들이 이기적 생존을 위하여 貪瞋癡를 발산하며 만들어내는 오염된 세계, 왜곡된 세계, 俗塵세상, 堪忍土, 娑婆세계, 五濁惡世 등과 같은 곳을 가리킨다. 불교는 이와 같은 세계의 원인자인 인간들을 중생이라 칭하고, 그들의 마음을 중생심이라 부른다. 이런 중생들의 중생심이 구축한 땅은 불교의 시각으로 볼 때 고통의 땅이자 번뇌의 땅이고 윤회의 땅이다. 불교는 인간과 그 세계에 대한 이런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며, 그것을 극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리고 불교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완전한 해탈을 지향하지만 그곳에 이르기 이전의 현실적 가능태로서 ‘淨土’를 상정한다.²²⁾

정토는 대승불교의 현실적 이상이다. 지금, 이곳의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청정한 땅’을 구현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극락이나 유토피아를 추상적으로 꿈꾸기 이전에, 그리고 소승적 자기구원의 해탈에 그치지 않고, 이 속진의 땅, 중생들의 땅에 ‘정토의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예토에서 인간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예고이다. 그러나 정토에서 인간들을 움직이는 원천은 예고 너머의 大我이다. 전자가 이기적인 단견으로 분별된 사유를 한다면, 후자는 전일적 상견으로 자리에타의 사유를

상(東西觀想)의 교류], 위의 책, 223-227쪽.

22)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엮음. 『불교의 이해와 실행』(조계종출판사, 2004), 138-145쪽.

한다. 따라서 예토는 언제나 예고의 이기성으로 가득하다. 이것은 존재의 실상을 깨치기 전에는 넘어설 수 없는 인간계의 한계이다.

구상의 시 『그리스도 폴의 강』에서 이런 예토와 정토의 상상력은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구상의 눈에 이 시의 중심장소이자 모티프이며 토대를 이루는 강물엔 예토의 흔적이 즐비하다. 강물은 단순한 강물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것을 종합하여 함축하고 있는 거울로서 이 거울에 비친 예토의 모습이 구상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

①5월의 숲에서 솟아난

그 맑은 샘이
여기 이제 연탄빛 강으로 흐른다.

일월(日月)도 구름도
제 빛을 잃고
신록(新綠)의 숲과 산은
묵화(墨畵)의 절벽이다.

암거(暗渠)를 빠져 나온
탐욕의 분뇨(糞尿)들이
거품을 물고 뚝뚝 뜬 물 위에
기름처럼 번득이는 음란!

우리의 강이 푸른 바다로
흘러들 그 날은 언제일까?

연민의 꽃 한 송이
수련(睡蓮)으로 떠 있다.

- 「그리스도 폴의 강 8」의 전문²³⁾

23) 구상, 『그리스도 폴의 江』(홍성사, 2009), 23쪽.

②잔설(殘雪)이 쌓여 있는 ‘대마등’에는
갈숲에서 들락거리는 요정(妖精)인 양
청둥오리들이 용기종기 노니는데

이 천연의 절경을 난도질 하려고
저 나루터쪽 하구(河口) 댐 공사장에서는
무법자의 모습을 한 준설선과 포크레인이
흉물스런 굉음을 울리고 있다.

- 「그리스도 폴의 강 31」의 부분²⁴⁾

인용시 ①에서 시인은 강을 통하여 ‘연탄빛 물결’, ‘제 빛을 잃은 하늘’, ‘묵화의 절벽이 된 산과 숲’, ‘탐욕의 분노’, ‘번득이는 음란’ 등을 본다. 청정했던 천지와 산하를 인간들이 오염시킨 실상을 강에서 발견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이다. 그는 강으로부터 이런 인간적 현실의 오염상을 보면서, “우리의 강이 푸른 바다로/ 흘러들 그 날은 언제일까?”라고 아프게 질문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천지산하와 인간들에 대한 ‘연민심’을 품은 안타까움의 표현이다.

인용시 ②는 청정했던 강물이 인간들에 의하여 어떻게 흉물스럽게 변하고 있는지, 그 현장을 보여준 시이다. 시인은 그 앞의 강을 바라보며 ‘천연의 절경’이 인간들에 의하여 난도질 당한다고 느낀다. 저 나루터쪽 하구의 댐 공사장에서 준설선과 포크레인이 무법자처럼 굉음을 내며 강을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강은 이 땅이 예토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강을 자신과 분리시켜서 대상화시키고 도구화하는 인간들의 사견, 수많은 오염들을 타자화시켜 자신의 영역 밖으로 흘려보내는 무지와 단견, 세상이 하나이며 서로 연결된 것을 모르고 자신의 욕망을 중심에 놓는 무지, 이런 것들이 이 땅을 예토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24) 위의 책, 55-56쪽.

이런 예토의 인식과 그 상상력은 구상으로 하여금 언제나 예토 너머를 꿈꾸며 그리워하게 한다. 예토를 전변시켜 정토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의지, 저 너머에서 정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곳에서 정토를 구현해야 하겠다는 마음, 눈을 뜨고 마음을 바꾸면 바로 지금/이곳이 정토가 된다는 현실론, 이런 것들이 구상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다.

예토에 대한 현실인식은 구상을 이곳에 발 디딘 현실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원천이다. 그러나 정토에 대한 꿈과 그리움은 그가 현실을 넘어서고자 끝없이 정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구상에게서 강은 이 두 가지 모습을 함께 보도록 만드는 장소이자 세계이다. 그러므로 그의 강에는 예토의 표상과 정토의 표상이 같이 들어 있다.

다음은 강물에 나타난 정토의 표상과 그 상상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①한 방울의 물로

강이 되어 흐르는
나는, 이제 내가 없다.

그렇듯 나를 꿈꾸게 하고
그렇듯 나를 절망하게 하고
그렇듯 나를 달뜨게 하고
그렇듯 나를 외롭게 하고
그렇듯 나를 불안하게 하고
그렇듯 나를 미치게 하던

내가 스러지고 없고
오직 흐름일 뿐이다.

그러나 비로소 나는
천연(天然)의 질서와 자유와
그 평화를 누린다.

②가을 강에는
잊혀지지 않는 눈, 눈동자들이
살고 있다.

이북(以北) 고향을 탈출하던 그날
행길까지 따라 나오셔
나를 내려주시던 어머니의
그 애절한 눈,

이승을 떠나시기 하루 전
악지가 세던 이 막내에게
'조금 줄여서 사는 것이 곧
조금 초월해 사는 것이니라'는
채근담의 한 구절을 짚어 보이시던
아버지의 그 자애에 찬 눈,

공산당 감옥에서 순교하였을
나의 오직 하나인 신부(神父) 형의
그 어질디 어진 껌벽 눈,

나의 가슴의 첫 그리움이던
도쿄 하숙집 거리 카페 에트랑제의
백계(白系) 러시아의 피가 섞인 유미짱의
흰 자위가 많은 보랏빛 눈,

- 「그리스도 폴의 강 43」의 부분²⁶⁾

시인은 인용시 ①에서 자신을 ‘꿈꾸고, 절망하고, 달뜨고, 외롭고, 불안
하며, 미치게’ 하던 ‘개아의식’의 소멸로 인하여 그가 얼마나 커다란 정
토를 지금, 여기서 스스로 창조하여 살고 있는지를 절절한 어조로 알려

25) 위의 책, 82쪽.

26) 위의 책, 75-76쪽.

주고 있다. 시인은 ‘개아의식’의 표상인 ‘나’를 버렸을 때 찾아오는 천연의 질서와 자유와 평화, 오직 삶 속에 ‘흐름’이란 무상의 길만이 피어나는 그 고차원의 삶을 예토에서의 이전 삶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정토는 본래부터 있는 것이다. 예토에 의하여 가리어졌을 뿐, 아니 스스로 정토를 예토로 만들어 살고 있을 뿐, 정토는 언제나 거기서 그를 기다리면서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정토는 저쪽의 상상적 피안이 아니라 이쪽의 현실적 차안이다.

다시 인용시 ②를 보면 시인은 정토의 표상들을 그의 마음 속에서 꺼내 보인다. 이 오염된 예토 속에서도 실은 이와 같은 정토가 살아 있었다는 것을 그는 여러 예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凝香』지 사건으로 남하하게 되었을 때 시인을 바라다 주시던 어머니의 애절한 눈, 고집이 세던 아들에게 ‘조금 줄여서 사는 것이 곧 조금 초월해서 사는 것’이라는 『채근담』의 말을 전해주던 아버지의 자애스런 눈, 공산당 감옥에서 순교했을 자신의 하나뿐인 신부 형의 어질디어진 눈, 첫 사랑이던 유태자의 흰자위가 많던 보랏빛 눈, 이런 것들이 그가 보여준 정토의 구체적 모습들이다.

이런 정토 속에서 너와 나는 분별 없는 하나가 된다. 그 속엔 ‘한 마음’의 작용만이 있을 뿐, 너와 나를 나누어 분리하는 상대성의 마음작용이 없다. 예토가 상대성의 대립된 마음작용이 주류를 이루는 데라면, 정토는 절대로서의 한마음의 작용이 토대를 이루는 時空이다.

정토 체험은 분리되었던 인간들을 하나로 이어준다. 그리고 소인의 욕망을 부끄럽게 여기며 무아의 꿈을 만개시키도록 한다. 여기서 一切는 一體이고, 인간들은 진심 공동체가 된다.

구상은 앞의 인용된 두 작품 이외의 많은 곳에서도 이런 정토의 감동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역설한다. 가령 「그리스도 폴의 강 30」에서 모든 고통을 참는 인욕행 속에서 유유함과 태평함과 무심함과 염화미소의

길을 가고 있는 강의 풍경, 「그리스도 폴의 강 38」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성철 스님을 한 자리에서 성인으로 외경하는 장면, 「그리스도 폴의 강 47」에 나오는, 식민국과 피식민국이라는 대립, 일본식민지와 조선 피식민지라는 대립, 더 나아가 어떤 인종적 차별도 넘어서서 오직 사랑의 힘이라면 시와 강을 공유할 수 있다는 대화의 장면, 그리고 「그리스도 폴의 강 55」에서 백두산 천지의 신비경을 보며 조국을 신뢰하고 조국애를 확인하는 풍경 등이 그러하다.

하지만 정토의 상상력 가운데 압권은 남북한의 모든 강을 하나씩 헤아리며 이른바 ‘月印千江’의 그 진리와 화엄의 강이 일체히 그곳에 함께 떠서 하나로 빛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 「그리스도 폴의 강 58」이다. 여기서 구상 시인이 보여주는 불교적 화엄정토의 모습은 참으로 包越的이고 거시적이며 고차원적이고 미학적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언급할 수 있는 것은 겨울강의 이면과 표면을 함께 보며 ‘靈山會相’의 법화정토를 그려보이는 작품 「그리스도 폴의 강 49」의 경우이다. 구상은 이 시에서 일체의 겨울강이 지닌 어둠을 포월하며 승화시킨다. 「그리스도 폴의 강 58」에서의 화엄정토와 「그리스도 폴의 강 49」에서 보이는 법화정토, 이것은 대승적인 정토의 상상력에서 핵심을 이룬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시집 『그리스도 폴의 강』에서 정토의 상상력을 극단까지 보여주는 존재는 이 시집 전체의 주 인물인 ‘그리스도 폴’ 성인이다. 그는 그야말로 예토의 사람에서 정토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길을 뚜렷하게 보여준 모범적 인물이다. 이 시집이 가능했던 것도 그로 인한 것이었으며, 구상 시인을 예토에서 끝없이 정토로 추동하고 안내하는 견인력도 그에게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 폴 성인과 구상은 모두 예토를 넘어 정토를 꿈꾸고 그를 향해 정진한 수도인으로서의 정토행자라 할 수 있다.

5. 결어

이 글은 구상 시인의 시작 여정 속에서 최고봉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의 연작시집 『그리스도 폴의 강』 속에 나타난 불교성 및 불교적 상상력을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씌어졌다. 이와 같은 시도를 하게 된 것은 구상 시 전편에 불교성 및 불교적 상상력이 두루 나타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이 시집 속에 그런 경향이 특히 비중 있게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구상은 일반적으로 가톨릭시즘에 그의 전 생애를 바친 시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일면적 진실일 뿐, 실제로 그의 시에는 범종교적이라 할 만한 종교적 원형이 장애 없이 통합되어 들어 있으며 특별히 불교성 및 불교적 상상력이 아주 강하게 배어 있다.

구상의 시집 『그리스도 폴의 강』에 나타난 불교성 및 불교적 상상력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이미 본론에서 언급했듯이 첫째, 시어의 상당 부분이 불교용어 및 불교적 표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둘째, 불교적 모티프나 이미지 또는 불교적 상징이 적잖게 들어 있다는 것이다. 셋째, 불교적 세계관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기공성’과 ‘연기일체’라고 부를 수 있는 불교적 세계관은 가톨릭을 비롯한 다른 종교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불교 특유의 세계관인데 구상은 이것을 받아들여 원용하고 있다. 넷째, 불교적 인간관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그 자체로 불성, 곧 ‘신성한 실재’를 지닌 존재라는 인식과 더불어, 그런 인간들이 회심과 수행을 통하여 진리 혹은 신성한 실재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들어 있는 것이다. 다섯째, 불교적 현실관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깨닫지 못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예토이지만 그 인간들이 눈을 뜨고 정진을 한다면 지금, 이곳에서 정토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집 『그리스도 폴의 강』은 이와 같은 불교성 및 불교적 상

상력으로 인하여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었으며 그것은 그의 시와 우리 시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런 물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구상 시인은 ‘진리’를 개개의 종교나 그 교리보다 앞에 두고 산 시인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그로 인하여 배타적 종교성 속에서 분열되었던 기성 종교나 교리가 포용되고 통합되는, 이른바 ‘和靜의 미학’이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불교를 통하여 가톨릭 신앙을 보다 넓은 차원에서 조명하고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가톨릭계를 위해서도, 또 가톨릭 문학을 위해서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점이다.

셋째, 시의 미학적인 측면에서 보다 넓고 깊은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인다. 구상의 불교적 안목과 포용력은 『그리스도 폴의 강』의 전체적 구성이나 문체를 원숙하게 하고 그 정신적 품격을 높여주는 데 기여하고 있는 터이다.

요컨대 우리는 구상의 시작품을 통하여 모처럼만에 높은 차원에서의 ‘和靜’의 상생적인 면모를 만날 수 있게 된다.²⁷⁾ 포용과 융합 그리고 열림과 소통이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토대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폴의 강』이 남다른 감동을 주고 또 한국 시사에 남을 문제작으로서 손색 없는 경지를 열어보인 것은 바로 시인의 이와 같은 자세와 추구 그리고 마음의 작용이 빚어낸 것이라 생각된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구상의 시 전체를 통하여 이런 ‘화쟁’의 세계를 탐구해 보는 것도 뜻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27) 구상, 「원효의 파계행(破戒行)」, 『구상문학총서 제8권 : 그 분이 홀로서 가듯』 (홍성사, 2008), 84-86쪽.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구상, 『그리스도 폴의 江』, 홍성사, 2009.
——, 『具常詩全集』, 서문당, 1986.

2. 논저, 평론, 기타

- 구상, 『그리스도 폴의 江(산문집)』, 성바오로출판사, 1977.
——, 『구상문학총서 1-8』, 홍성사, 2008.
길희성, 『보살 예수』, 현암사, 2004.
김봉균, 「구상의 시 또는 현존과 영원의 조응」, 『시문학』333(1999. 4.), 33-44쪽.
—— 외, 「구상문학을 재점검한다(토론)」, 『월간문학』487(2009. 9.), 234-257쪽.
김은경, 「구상의 연작시 연구 - 『그리스도 폴의 강』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정신, 「구상 시의 존재론적 탐구와 영원성」, 『문학과 종교』15권 1호 (2010), 61-80쪽.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엮음, 『불교의 이해와 실행』, 조계종출판사, 2004.
배봉한, 「빛과 소금 이 땅의 평신도 : 삶을 노래하는 구도 시인 구상 1-10」, 『평화신문』1366호-1375호, 2016. 5. 28-7. 30.
손중호, 『근대시의 영성과 종교성』, 서정시학, 2013.
우종상, 「구상 시 연구 - 현실의식과 구원사상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시인 구상의 문학세계』, 글마당, 2011.

- 이석영, 『모든 사람을 위한 빅뱅이론 강의 : 한 권으로 읽은 우주의 역사』, 사이언스북스, 2009.
- 이승원, 「해설 : 강(江)의 상징성과 불이(不二)의 세계관」, 『그리스도 폴의 江』. 홍성사, 2009, 117-140쪽.
- 이승하, 『한국 시문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대학교 출판부, 2001.
- 이찬수, 『다르지만 조화한다 : 불교와 기독교의 내통』, 모시는 사람들, 2015.
- 홍신선, 「초월과 물의 시학 - 具常論」, 『상상력과 현실』, 인문당, 1989, 84-96쪽.
- 나카무라 하지메, 석오진 옮김, 『붓다 안의 예수, 예수 안의 붓다』, 운주사, 2008.
- 니터 폴, 정경일 옮김,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 클리어마인드, 2011.
- 헉슬리 올더스, 조옥경 옮김/오강남 해제, 『영원의 철학』, 김영사, 2014.

<Abstract>

Gu Sang's *The Christopher's River* and Buddhist Imagination

Jeong, Hyo-G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Buddhist characteristics and Buddhist imagination found in *The Christopher's River*, poet Gu Sang's series collection of poems, which can be regarded as the greatest masterpiece in his journey of writing poetry. The reason this author tries this is that Buddhist characteristics and Buddhist imagination are prevalent in Gu Sang's poetry in general, and especially such tendencies are internalized in this collection of poems so much more.

Although Gu Sang is known as a poet who devoted his entire life to Catholicism generally, this is only partly true. In fact, his poems exhibit religious prototypes that can be said to embrace all religions integratively with no obstacles, and particularly, Buddhist characteristics and Buddhist imagination are very thickly soaked into them.

Buddhist characteristics and Buddhist imagination found in Gu Sang's collection of poems, *The Christopher's River*, can be briefly summed up as follows: as mentioned earlier in the main body, first, the poetic words used in it are mostly Buddhist terms or expressions. Second, Buddhist motives, images, or symbols are not a few, either. Third, there is an underlying Buddhist view of the world. In

particular, the Buddhist view of the world that can be referred to as ‘Dependent Origination of Emptiness(緣起空性)’ or ‘Dependent Origination of Oneness(緣起一體)’ is uniquely found in Buddhism, not other regions including Catholicism, but Gu Sang does accept and quote those. Fourth, it also includes the Buddhist view of humans. In other words, it internalizes the belief that humans are the beings equipped with the nature of Buddha, that is, ‘sacred substance’, and also, humans can be the trust or sacred substance itself through change of heart and cultivation. Fifth, it embraces the Buddhist view of actuality. He deems that the world where unenlightened humans are living is the Mundane Land, but if those humans open their eyes and devote themselves, they can realize the Pure Land here, now.

If so, what kind of effect can the collection of poems, *The Christopher's River*, exhibit with such Buddhist characteristics and Buddhist imagination, and what meaning or significance can it provide into his poetry and our current events? About these questions, we may be able to mention some of the points as below:

First, Gu Sang is a poet who lived his life while valuing ‘truth’ more than any of the religions or their doctrines. And by that, he thinks existing religions or doctrines divided within exclusive religious sentiments become embraced and integrated, and so-called aesthetics of ‘Harmony of Otherness(和諍)’ can be established.

Second, he opens the possibility to view and unfold Catholicism in a broader perspective through Buddhism. This can contribute to not only Catholic circles but Catholic literature as well.

Third, he created a chance to actualize an even bigger and deeper world in the aspects of poetic aesthetics. Gu Sang’s Buddhist insight

and tolerance d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Christopher's River's* overall organization, style, or spiritual class.

To wit, through Gu Sang's poetry works, we can encounter a true world that is more elevated and oriented to mutual living in terms of 'Harmony of Otherness(和諍)' for a change in a general perspective. It means we can experience tolerance, convergence, opening, and communication are the grounds to accomplish such a great outcome. *The Christopher's River* has opened the stage that can move us in such a unique way and is flawless as a controversial work is because of the poet's such attitudes, pursuit, and functioning of his mind.

If time permits, it would be a meaningful task to explore the world of 'Harmony of Otherness(和諍)' grounded on all the poetic works of his.

Key Words : Gu Sang, *The Christopher's River*, Catholicism, Buddhist characteristics, Buddhist imagination

■ 논문접수 : 2016년 11월 13일

■ 심사완료 : 2016년 12월 9일

■ 게재확정 : 2016년 12월 21일

КСІ